말의 입과 꼬리에 의한 악랄한 죽임

(계9:13~21)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6.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이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19.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말의 입과 꼬리에 의한 악랄한 죽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용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함께 읽었는데, 여섯 번의 나팔이 불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사건들은 그 전체가 통일된 틀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듣게 하기 위해서 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뗐을 때, 하늘에 반시 동안 고요가 있고, 그 고요함 가운데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들어라!' 들으라는 겁니다.
소리가 제대로 들리기 위한 무대가 침묵과 고요입니다.

내가 막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어쨌든 이 틀에서 오늘도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9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바꾸기 위한 회개의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깁니다.

자, 이러한 기본 틀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여섯 번째 나팔과 연관된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결국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마병대에요, 마병대.
유브라데 강에 억압되어 있던 마병대들이 풀려나면서 죽이는데, 그 말 한 마리 한 마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 말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뱀같이 생긴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또 해친다는 거예요.
입으로 죽인 사람을 어떻게 또 해칩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을 죽인다는 죽임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이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는데 그 머리가 또 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니까, 중동 땅에 2만 만이면 2억이니까 2억 명의 군대가 집결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당시 인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문자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죽인다고 하는 죽임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육체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역사 속에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history 책에 기록될 사건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난리가 있겠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외에 더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 정도로 얘기하셨으면 그 정도로만 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책에 기록될 사건에 대한 차원은 그 정도로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앞에 있는 미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두에 둘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쓰여 진 당시를 생각하면 2천 년 동안 아직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여섯째 나팔과 연관돼 있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후 지금까지 살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구절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말 유브라데 강 중동 땅에서 일어난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여기서는 군인들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틀에 대한 얘기는 그만 하고, 죽임의 성질을 봐요.
뱀 같은 꼬리가 있는데 머리가 달려있어서 그게 해롭게 한다.
여러분, 뭐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뱀의 머리라는 것은 사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사탄의 지혜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뱀의 지혜가 역사적으로 마귀 집단에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겁니다.
그때 뱀의 지혜에 의해서 타락된 사건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기쁨이 없는 땅으로 몰려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이 왜 기쁨의 땅이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는 것인데, 그 비어있는 것이 채워져야 기쁘거든요, 에덴이 기쁨의 땅이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게 됩니까?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지 않음으로써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셔 들이면 판단만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연합의 차원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다,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져서 기쁨이 있으면서 부부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자녀노릇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채워짐으로써 기쁨이 있다는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쫓겨난 뒤로는 마귀의 지혜가 가르쳐준 것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빈 마음을 채워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빈 마음을 채워줌으로써 기쁨이 있게 해서 기쁨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상태는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는 것 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정도 이야기해두고…
이 19절의 말씀이 아직 미완의 개념이에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해두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제 다섯 번째의 나팔소리와 연관된 사건 속에서 그 해석의 key를 무저갱으로 잡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금 제단입니다.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소리가 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해갖고 천사가 놓여서 활동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만 만의 마병대가 풀리고 그 마병대가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임의 내용을 더 자세히 얘기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였고, 그리고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어서 그것이 해하더라, 하고 얘기가 진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 제단이 뭡니까?
일곱 나팔이 불려 지기 전의 상황이 있었어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에 있지 않았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일곱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다른 천사가, 제단이 있고(요한이 알고 있는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또 금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들고 그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그 향과 함께 금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금 제단의 용도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향불로 모아서 바쳤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응답이 주어지는데, 다시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또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곱 나팔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재앙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억울해서 복수를 갚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인을 뗄 때 말했던 그 한이라는 것도, 내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고 좋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에 대한 한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이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도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왜

곡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기도를 통한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 제단이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받으실 때, 왜 꼭 번제단의 불을 담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 이루고 싶은 성취 등, 나의 모든 판단과 소원이 다 불타죽어야 기도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 때문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돼야 하냐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둔 내가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번제단에서 죽어버립니다.
번제단에서 죽으면서 사업에 묶여있던 내 마음이 풀려나서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마음과 힘과 뜻이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음과 힘과 뜻이 사업에 집중돼있었거든요.
근데 번제단에서 그러한 내가 타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이 다 하나님께로 드려지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사업이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일을 대신 해라!'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번제단의 불을 같이 주십니까?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내 사업으로 사업을 잘해보고 싶었는데 기도를 하다보니까 번제단에서 타죽고 이제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으로서 수행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업이 잘됐습니다.
그렇게 잘되다보면 내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응답을 주실 때 번제단의 불을 같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일어나는 사업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음성과 우레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번개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고 지진이라는 것은 이 땅의 관행과 습관, 이 땅의 원칙과 법칙을 뛰어넘거나 거슬러서, 형성된 땅에 매몰되지 않은 상태에, 응답들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진다는 뜻을 말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금 제단 네 뿔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자, 금 제단 네 뿔에서 소리가 났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70억 인류 전체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다 몰라도 70억 인구 중에 단 한명도 기억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계시는데, 금 제단을 통해서 그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이들은 왜 마음과 뜻과 힘이 나에게로 도달하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봤더니 그들의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의도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이것만 가지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대상들로 가득 차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복음이 주어지면서 그 잘못된 생명과의 관계, 이것을 깨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이 복음사건이, 옆에서 왕왕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브라데 강의 마병대를 풀어 놓습니다. 유브라데 강이라고 해서 중동 땅에서 무슨 역사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요한의 마음속에서 뭔가 성령님에 의해서 보여 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요한이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유브라데 강가에 억압돼있고 제어돼있는 2억의 마병대로 연상이 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브라데 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고로 확장된 영토를 기준으로 볼 때 동쪽과 북쪽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워낙 길어가지고 동북의 경계를 이루는 곳인데, 이스라엘 왕국의 동북의 바깥에는 항상 누가 존재했었나 하면, 앗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이런 제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국의 의미가 뭡니까?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했어요,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계속 메대와 바사에 묶여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들이 남 왕국 유다를 침공할 것을 마음속에 보면서 뼈와 창자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고, 이제는 완전한 멸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형성돼서 흥망성쇠를 되풀이하고 있었던 제국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뼈와 살이 떨릴 정도의 두려운 공격이 시작되면서 멸절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두려움이 이제 임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금 제단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두려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말을 탄 자들이 가슴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달았는데, 그 말의 입에서 호심경의 빛과 상응하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지옥을 특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이나 19장에 보면,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의 못에 집어넣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연기라는 것은 숨을 쉴 수 없는 것 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지옥의 불과 유황과 연기로 질식함이 임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게 곧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죽음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생명 현상에서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나인 성 과부 얘기를 우리가 생명에 대해 말할 때마다 자주 언급합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 외아들은 누굽니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거기서 기쁨이 나오지 않으면 기쁨은 없어요.
근데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바가 뭡니까?
그냥 이 나인 성 과부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라는 게 동서남북을 의미하면서 언제나 4라는 숫자가 이 지구 전체를 포함하는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이만 만의 마병대는 어마어마한 숫자

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숫자라는 얘기인데, 보편적으로 말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영역에서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끝없이 이런 실패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게을렀기 때문이다,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억압돼있던 천사를 풀어 놓으시면서 이만 만의 마병대가 풀려나오고, 그 마병대의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주어져 내가 숨을 못 쉬면서 죽어가고 삶의 의미가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앞의 다섯 번째 나팔 때, 황충도 같은 뜻이 아니겠느냐?
비슷하지만 달라요.
황충은 환경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기쁨과 평강과 성취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무한한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이의 허무함과 우울함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죽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채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굶주리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서 죽고 싶은 정도로 공허한데, 채울 게 없는 상태, 이게 바로 황충의 경우였고, 오늘은 외부적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이삭을 버리면서 이삭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음을 몰아가는 건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고 꽁꽁 붙잡고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신 거지만 이삭을 버릴 수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떼 가시고 이삭을 죽여 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세요, 사업가가 사업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마음이 사업에 다 가있고 사업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십니다.
이제 살 길이 없는데, 생명이 없어진 거죠, 거기에 해가 더해집니다.
뱀 같은 꼬리의 머리, 무슨 얘깁니까?
계속해서 망해버린 사업의 가치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뱀이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사업만 잘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어!'
사업의 중요성, 잘되는 사업의 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의 능력, 예술가들의

경우 콩쿠르 우승의 힘, 그런 것들을 이 사탄의 지혜가 계속 크게~ 크게 확장시켜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서 두렵거나 잃어버린 것이 사탄의 지혜에 의해서 내 마음이 설득되면서, 그게 소중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더욱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더욱 더 좌절의 구렁텅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과 다른 것은 외부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존재하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갖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류역사 이래 계속되고 있는 실패였는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몰랐었는데, 위를 보고 있는 사도요한에게 공중에서 하늘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실패가 있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생긴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잘되면 내 마음이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가치와 능력이 마구잡이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의 농도가 더 짙어지게 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점점 더 죽어버립니다, 이 뱀 같은 꼬리에 달린 머리의 지혜에 의해서 자꾸 마음이 설득되니까.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 하고.

제가 만약에 삼성 같은 기업의 회장인데, 그런 큰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돈 몇 백만 원 때문에 싸우다 사람까지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다 마귀가 그 싸우는 순간에는 돈 몇 백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 같은 꼬리에 달린 머리의 힘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자존심이고 내 삶의 의미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 순간에 완전히 미쳐버려서 사람을 죽여 버립니다, 나도 죽는 거예요.
삼성 같은 기업을 내가 잃어버려도 내가 잃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아버지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질 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하는 것은 뱀 같은 꼬리에 달린 머리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이 세상의 것이 커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 보이는 것들이 내게서 상실되고 강압적으로 떼어져 나가고 그것이 죽거나 멸절될 때, 나는 마음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지옥불과 유황과 연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내 몸은 살아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지옥 불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재앙이 주어지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죽음이 도처에, 숫자로 3분의 1이 아니라 인류가 사는 모든 곳에 다 이런 실패가 주어지고, 가장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다 상실되는 이런 생명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이 주어지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제까지의 삶을 지속해나간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일어나요, 칠전팔기처럼 나쁜 말이 없습니다.
한번 실패해서 맛을 봤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왜 또 다시 성공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칠전팔기라는 것도 뱀 같은 꼬리에 있는 마귀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아세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중해보이고, 그것이 안 되면 꼭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까?
이 뱀의 지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인 십자가를 붙잡고 풀려나와서, 금 제단에 기어코 내 마음과 뜻과 힘이 다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